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고양시

2019 고양 인권 문화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인권과 문화가 만나다

2019.
6.27.(목)
—
6.29.(토)

고양시

6.27.(목) 인권여행콘서트
19:00 – 20:30
어울림영화관

돌멩이 소년과 오로라의 편지

인간의 존엄과 더 좋은 삶의 약속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인권여행!
작가 양정훈, 싱어송라이터 최진주, 피아니스트 오아라가 함께
꾸미는 울림 가득한 인권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 작가의 인권이야기 토크
- 글 낭독과 피아노연주
- 공연 및 사진 파노라마

〈출연진〉



진행·낭독 | 작가 **양정훈**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여행」, 「북유럽은 행복하다」 등 저자
- 인권교육활동가
- 여행인문학월간지 ARTRAVEL 편집장



노래 | 싱어송라이터 **최진주**



연주 | 피아니스트 **오아라**

- 팝재즈밴드 느루
- 앨범 「SOULMATE」, 「FROM LOVE」, 싱글 '청춘 그리고 사랑', '산책' 등
-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대학로 문화축제 등 다수 공연

6.28.(금) 인권연극
16:00 – 17:30
고양시청 문예회관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_어둠 너머의 목소리

인권운동가 케리 케네디가 직접 전세계 서른 다섯 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이 희곡으로 만든 연극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는 알려지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의 목소리에 빛을 비춘다. 극단 종이로 만든 배는 납치, 살인, 강간이 자행되는 폭력적인 권력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온 인권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공연 스틸컷〉













6.29.(토) 인권사람책 도서관
14:00 – 16:30
아람누리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

인권 사람책 도서관

사회적 인권 약자(노인, 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가 '사람책'이 되어 당사자의 언어로 삶을 이야기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 리스트〉



나윤경
뭐랄까 '인생'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나윤경은
벌써 20년이나 살았다.
이제는 어른이고 성인이라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인생은 뭘까?



박영임
할머니는 초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초수가 어느날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마 내가 있자나.
내가 엄마를 그리워 하듯 할머니도 할머니의 엄마를
그리워 하자나. 우리 함께 잘 살면 돼"
초수가 있음으로 밝게 살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김희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어른들은 언제나 충고를.
조언을 해 "꿈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계속 바뀌는걸 어떻게.



김영훈
불행에서 희망을 찾고 이제 '미래' 를 봅니다

후천적 시각장애로 어둠속에서 2년 포기하기도
힘든 삶을 살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내 책의 뒷부분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미래를 보게 되었다.